

2026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NEXT) 전문인력 해외파견 참가자 공모 심사 결과 발표

□ 선정 결과: 총 11명

- 선정자 목록(선정자명 가나다순)

공모유형	성명	파견국	파견기관
지정형	조○민	네덜란드	de Appel
자율형	강○구	일본	SHIBAURA HOUSE
	강○욱	대만	Alternative space Waley
	김○슬	영국	University of the Arts London
	김○삭	대만	Prologue Center
	나○랑	핀란드	HUB FEENIX RESIDENCY
	박○주	인도네시아	Rame-Rame Jakarta
	손○민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Riverside
	정○윤	미국	ARTSLab at University of New Mexico
	조○석	이탈리아	Accademia Teatro alla Scala
	조○리	미국	Asia Art Archive

□ 종합 심사평(최종)

2026년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전문인력 해외 파견 선정평가는 공모요강에 따라 국제문화교류 분야 신진·전문인력이 해외 우수 문화예술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직무 경험을 확대하고 연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객관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지원자가 지원 목적과 참여 의지를 명확히 제시하였으며 지원신청서 또한 성실하고 충실하게 작성되어 심사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와 주제를 기반으로 다양한 국가 및 기관을 대상으로 한 파견 계획이 제시되어 향후 파견 성과의 활용 가능성과 국내외 현장으로의 파급 효과가 기대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상당수 지원자가 해외 파견을 통해 습득한 경험과 성과를 향후 현장에 환류·확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 본 사업의 취지인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지정형 공모의 경우 지원자들이 대상 기관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차별화된 활동 계획을 제시하였으며 전문성과 수행 가능성 측면에서 우수한 역량을 보였습니다. 자율형 공모의 경우에도 전반적인 준비 수준은 양호하였으나 일부 지원자는 연구 주제 및 활동계획이 다소 추상적이거나 국제문화교류와의 연계성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아 구체성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다수의 지원계획이 해외 사례의 수용에 초점을 두고 있었으며 한국 문화예술을 해외에 소개하고 상호 교류를 확대하는 관점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향후에는 국제문화교류의 상호성과 성과 확산 방안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활동 목적의 명확성, 수행계획의 구체성, 파견기관의 적합성, 수행역량 및 성과 지속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하였습니다. 다만 당초 선발 예정 규모 대비 심사기준을 충족하고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지원자를 중심으로 선발함에 따라 최종 선발 인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성과관리 체계와 후속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심사위원(가나다순) 김세훈, 김소연, 김승연, 김이순, 오영은, 이준희, 최경희,
Maira Nolla Mateos(지정형), Natascha van den Boom(지정형)